



김희성(서울신대 명예교수)

1. 들어가는 말

개신교는 구원론과 관련하여 마틴 루터와 함께 성서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한 멜랑흐톤이 “아웁스부르그 신앙고백서”에서 ‘sola fide!’의 있을 법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한 ‘sola fides est nunquam sola’¹⁾는 잘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sola fide!’만을 부여잡고 가르치며 전파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결과 현대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

1) 참조. Augsburgur Konfession, *Bekennnisschriften der evangelischen lutherischen Kirche*, Göttingen, 31956, 928; H. G. Pöhlmann, *Abriß der Dogmatik*, Gütersloh, 31980, 236. 거기서 마틴 루터의 동지인 멜랑흐톤이 루터의 개혁운동에서 나온 교회들을 위한 신앙과 자기 정체성을 다음처럼 요약한다. “... sola fides est, quae apprehendit benedictionem sine operibus; et tamen nunquam est sola.”(= 믿음만이 행위 없이 은혜를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홀로가 아니다.) 이 요약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가 아니다. Sola fides est nunquam sola! 믿음은 결코 행위 없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들의 믿음과 분리된 행동은 대체로 모범적이지 않아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개신교는 종교 선호도에서도 많이 떨어져 정체 내지는 침체되기도 한다. 현대 개신교 신자들의 그러한 경향은 최초의 초대 기독교의 경향과 크게 모순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배경이 되는 유대교의 토대는 예로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삶의 실천을 논증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 그렇게 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정도로 확실해서 현세에서 입신양명하는데 불리한 좋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잘못 행한 행동들은 편리하게도 회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행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비단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은 아닌’ 중간기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종말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세계화 시대에만 세계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대에서든지 세계와 관계를 갖고 있다. 대체로 기독교인은 누구나 비기독교적인 세계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맞부딪히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마도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칼론 에르곤)일 것이다. 이 어구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목회서신,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등에 기독교자들 내지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중요 윤리적 덕목으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 “착한 행실”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참조. 마 5:16)에서 기독교인의 지고한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언

2) 김희성, “산상보훈의 *Imitatio Dei*”,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 (1994), 85; 참조. L. Schenke, *Das Markusevangelium*, Stuttgart, 1988, 173.

급된다. 이 발제논문에서는 연구 범위를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칼라 에르가)에 맞추어, 이 어구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소금과 빛(마 5:13-16)의 분석

마태복음 5장 16절은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의 소단락에 속한다. 먼저 이 소단락을 언어학적, 역사비평적 분석을 한 후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을 해석하려고 한다.

1) 문장론 분석

이 단락에서 주요 단어들은 모두 두 번씩 등장하여 이 단락을 결집시킨다. 예를 들면, $\kappa\alpha\lambda\theta\rho\omega\pi\omicron\iota$ (13c, 16a); $\acute{\epsilon}\sigma\tau\epsilon$ (13, 14); $\tau\acute{o}$ $\acute{\alpha}\lambda\alpha\varsigma$ (13a, 13b), $\tau\acute{o}$ $\phi\acute{\omega}\varsigma$ (14a, 16a), $\lambda\acute{\alpha}\mu\rho\omega$ (15b, 16a). 이 주요 단어들 중에서 소금을 뺀 나머지 단어들은 교차대조³⁾를 형성한다.

- a) 사람들(13c)
- b) 세상의 빛 (14a)
- c) 비친다 (15d)
- c') 비취라 (16a)
- b') 너희 빛 (16a)
- a') 사람들(16a)

이 교차대조 형식에 의하면, 빛은 비취게 되어 있다. 세상의 빛인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비취야함이 강조된다.

또한 등불과 등경에 관한 속담도 다음처럼 교차대조 형식으로 짜여

3) U. Luz, *Das Evangelium nach Matth us I*, Zürich, 31992, 219 이하; 김희성, 「입체적으로 본 산상보훈」(서울: 영성, 2005), 63.

있다.⁴⁾

- a) 사람이 등불을 켜서 (15a)
- b) 말 아래 두지 않고 (15b)
- b') 등경 위에 두나니 (15c)
- a')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15d)

이 교차대조 형식에 의하면, 등불을 키는 것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험이라는 의미가 부각된다.

2인칭 복수 ὑμεῖς가 주어로 강조되어 문장의 맨 앞에 두 번(13a, 14a) 병행적으로 나온다. 이것은 “바로 너희는 ...이다”(ὑμεῖς ἐστε...)으로 해석되는 아주 첩예한 화법으로서 배열의 문체형태에 속한다. 병행하는 이 두 구절로 이 단락이 짧은 부정적인 진술과 더 긴 긍정적인 진술⁵⁾의 2개의 소문단으로 나누인다.

주동사는 미래시제 1개(13c)를 제외하면 모두 현재 직설법 시제로 되어 있다. 현재 직설법 능동태가 4번이나 등장하여 이 두 번째 소문단은 능동적인 행위가 강조됨을 보여준다. 각 소문단에 분사(13e, 14b)와 부정사(13f, 14b)가 각각 1번씩 등장한다. 명령법은 한 번(λαμψ?τω: 16a) 등장한다. 이 명령법은 단순과거 명령법으로 명령을 들은 즉시 행해야(빛을 비춰야) 함을 강조한다. 그 반면에 이 단락의 바로 앞의 12절에 나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현재 명령법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기독교자의 기뻐하고 즐거워함의 지속성 내지는 반복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참조로 소금에 관한 말씀과 빛에 관한 말씀의 구조는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다.⁶⁾

4) 김희성, 율글, 63 이하.

5) U. Luz, 율글, 219.

6) 김희성, 율글, 64.

(1) 소금에 관한 말씀(13절)의 구조

- 기능 정의(13a): (강조된 너희로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 기능 상실에 대한 가정(13b): 만일 맛을 잃으면
- 기능 상실의 결과(13cde): (점증법으로 구성)
- 기능 회복 불능(13c):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 폐기처분(13d): 밖에 버리워
- 결과(13e):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2) 빛에 관한 말씀(14-16절)의 구조

- 기능 정의(14a): (강조된 너희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기능 설명1, 속담(14b):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숨길 수 없다
- 기능 설명2, 속담(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 사명 부여(16a):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취라
- 사명의 정의(16b α): 너희 착한 행실
- 사명 수행의 목적(16b β):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 신약에서 '에르곤'의 의미론적인 장

(1) '칼론' 에르곤'의 마태복음에서의 용법

'에르곤'이 마태복음에는 6번 등장한다. 그 단어가 두 번 '칼로스' ($\kappa\alpha\lambda\acute{o}\varsigma$)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마 5:16; 26:10). 여기 5장 16절에서 '에르곤'은 기독교자들이 행해야 할 좋은 행실, 혹은 착한 행실로 사용된다. '에르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표시하기도 한다(마 11:2).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문맥에 의하면 각종 질병인과 장애인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11장 19절(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의 '일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11장 2절과

의 관련성 속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⁷⁾ 그 관련성 속에서 하나님
 님의 지혜의 일들이 예수가 행한 일들과 동일시되고,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은 정당성 증명의 기능을 갖는다.⁹⁾ 마태복음 23장 3, 5절에서
 ‘에르곤’은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행위’로 번역되었다. 이 두
 구절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개의 화 선언의 도입 부분에 속
 하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선생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지
 시하고,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좋지 않은 행위들을 내포한다. 5절에
 서 이것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지향하는 좋지 않은 행위로 잘못된 행위
 들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문 띄를 넓게 하는 일과 옷 술을 길게
 하는 일들로 언급된다. 맨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일 내지는
 행위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값비싼 향
 유를 부은 사건이다. 이 향유부음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참조.
 26:12)¹⁰⁾로서 칭찬받을만한 예수에게 행한 좋은 일(26:10: ἔργον καλὸν
 ἐργάζομαι εἰς ...)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전형
 적인 유대의 “좋은 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이상에서 마태복음에서 ‘에르곤’은 두루 신적인 일, 인간의 일, 좋은
 일, 나쁜 일’에 사용되었다. 그것이 특히 ‘칼로스’와 함께 사용되어서
 좋은 행실 내지는 착한 행실을 표시한다.

7) E. Schweizer, *Das Evangelium nach Matth us*, G ttingen, 41986. 172.

8) 윗글.

9) R. Heiligenthal, ἔργον, EWNT II, Stuttgart, 21992, 125.

10) 갈릴리에서 예수 사역의 초기에 조 많은 한 여인의 향유 부은 기사를 소개한 누가복음(눅 7:37 이하)과는 달
 리 마가복음(막 14:3 이하)과 마태복음(마 26:6 이하)이 이 여인의 향유부음 이야기를 수난사화의 시작 부분
 에서 소개한다. 향유 부음과 예수의 수난과 연계시키지 않았던 누가복음만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 후에 갈릴
 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μύρα)를 준비했다고 한다(참조. μύρον, EWNT II, 1097).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여인들이 향품(ἀρώματα)만 사다 두었다고 보도한다. 마태복음의 향유 부음
 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는 것을 시사함이 분명하다.

11) E. Schweizer, 윗글, 318.

(2) 신약에서 '에르곤'의 의미론적인 장

'에르곤'(ἔργον)은 신약에서 종종 행위를 통하여 가져온 것 혹은 가져와야 하는 것을 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히 1:10; 4:3.4 u.ö.)로서 예수에게 적용되고(마 11:2; 행 13:41; 계 15:3;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기적들과 관련하여) 또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의 전체 행위활동의 표시에 사용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집합적인 '토 에르곤'(τὸ ἔργον)이 복수 '에르가'(ἔργα) 대신에 등장할 수 있다(갈 6:4; 히 6:10; 계 22:12). 속격 결합에서 '에르곤'은 힘이나 그룹에로의 종속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롬 13:12; 갈 5:19; 엡 5:11; 요일 3:8; 비교 계 2:6; 역시 롬 2:15; 3:20; 갈 2:16; 3:2, 5, 10). κατὰ τὰ ἔργα는 판단할 수 있는 주무기관의 평가 기준이다.¹²⁾

'에르곤'이 우선은 일의 다양한 인격적 주체와 결합된다. “하나님의 일”(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요 6:28, 29(단수); 9:3; 롬 14:20), “그리스도의 일”(τὰ ἔργα τοῦ Χριστοῦ: 마 11:2; 빌 2:30(단수)), “주의 일”(ἐν τῷ ἔργῳ τοῦ κυρίου: 고전 15:58; τὸ ἔργον κυρίου: 고전 16:10), “내 아버지의 일”(τὰ ἔργ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요 10:37); “자기의 일”(τὸ δὲ ἔργον ἑαυτοῦ: 갈 6:4). '에르곤'이 적대적인 인격의 행위에 관하여서도 사용된다. “마귀의 일”(τὰ ἔργα τοῦ διαβόλου: 요일 3:8), “너희 조상의 일들”(τοῖς ἔργοις τῶν πατέρων ὑμῶν: 눅 11:48). 이러한 용법에서 일의 인격적인 주체들 사이의 이원론적인 대비가 뚜렷하다. 이러한 대비 하에서 '에르곤'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일(τὸ ἔργον τῆς πίστεως: 살전 1:3; 살후 1:11[관사 없이 사용])과 봉사의 일(엡 4:12 ἔργον διακονίας)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육체의 일(τὰ ἔργα τῆς σαρκός: 갈 5:19)과 어두움의 일(τὰ ἔργα τοῦ σκότους: 롬 13:12; 비교. 엡 5:11)로 규정되기도 한다.

12) R. Heiligenthal, *윗클*, 124.

‘에르곤’이 다음과 같은 주요 표제어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말씀”(λόγος: 눅 24:19; 행 7:22; 롬 15:18; 고후 10:11; 골 3:17; 살후 2:17), “진리”(ἀλήθεια: 요일 3:18), “율법”(νόμου: 롬2:15; 3:20; 3:28; 갈 2:16 3:3; 2, 5, 10)] 등장하여 율법의 일이 믿음의 일과 대비된다.¹³⁾

‘에르곤’은 여러 형용사들로 한정되어 그 행위가 특성화된다.¹⁴⁾ 이것도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으로 크게 대비된다. 인간의 일, 행위는 긍정적으로는 우선 ‘좋은’(ἀγαθῶν: 행 9:36; 롬 2:7; 13:3; 고후 9:8; 엡 2:10; 빌 1:6; 골 1:10; 살후 2:17; 딤펢전 2:10; 5:10; 딤펢후 2:21; 3:17; 딤펢 1:16; 3:1)과 ‘좋은’ 내지는 ‘착한’(καλόν: 마 5:16; 26:10; 막 14:6; 요 10:32, 33; 행 9:36; 딤펢전 3:1; 5:10, 25; 6:18; 딤펢 2:7, 14; 3:8, 14; 히 10:24; 뱌전 2:12)으로 한정된다. 이 두 형용사는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ἀγαθός는 더 신념과 거기에 기인한 관습적인 가치를 표시한다면, καλός는 더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 좋은 것의 드러남을 표시한다.”¹⁵⁾ “좋은 일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본(τύπος: 딤펢 2:7)을 보여야 할 주요 행실이다.¹⁶⁾ 이 이외에도 ‘에르곤’이 ‘완전히 이룬’(τέλειον: 약 1:4), ‘의’(τῶν ἐν δικαιοσύνη: 딤펢 3:5)로 또는 “회개에 합당한”(ἄξια τῆς μετανοίας ἔργα: 행 26:20)으로 서술된다. 그 반면에 인간의 행위가 부정적으로는 “악한”(πονηρόν: 요 3:19; 7:7; 골 1:21; 딤펢후 4:18; 요일 3:12; 참조: 요이 11), “죽은”(νεκρῶν: 히 6:1; 9:14), ‘불법한’(ἀνόμοις: 뱌후 2:8), “열매 없는”(ἄκαρπον: 뱌후 1:8), 혹은 ‘불경건한’(ἀσεβείας: 유 15) 등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에르곤’이 여러 종류의 동사들의 목적어로 사용된다. 우선 ‘보다’

13) 이러한 대비는 바울에게만 전형적이다. R. Heiligenthal, *위글*, 126.

14) *위글*, 124.

15) Th. Zahn, *Das Evangelium des Matthäus*, Wuppertal, 1984, 206, Anm. 62; J. Wanke, καλός, EWNT II, 21992, 602.

16) J. Wanke, *위글*, 602,는 “좋은 일들(딤펢전 5:10, 25; 6:18; 딤펢 2:7, 14; 3:8, 14; 뱌전 2:12; 히 10:24)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자들의 좋은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 직분을 받은 자들(딤펢 2:7), 부자들(딤펢전 6:18)과 전체 하나님의 백성(딤펢 2:14; 3:8, 14)은 ‘좋은 일들’에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밝힌다.

(ὁράω: 마 5:16; 뵈전 2:13; 히 3:9), ‘듣다’(ἀκούω: 마 11:2), ‘안다’(οἶδα: 계 2:2; 3:1, 8, 15), 옳게 여기다(συνευδοκέω: 눅 11:48)등의 지각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다음으로 ‘회개하다’(μετανοέω: 계 9:20; 16:11), ‘지키다’(τηρέω: 계 2:26), ‘하다’(ἐργάζομαι - 막 13:6; 마 26:10; 요 6:28; 9:4; 행 13:41; 고전 16:10)¹⁷⁾, ‘행하다’(ποιέω: 마 23:5; 23:3; 요 7:3, 21; 8:39, 41; 10:25, 37; 14:10, 12; 15:24; 17:4; 요삼 10; 계 2:5), ‘실행하다’(πράσσω: 행 26:20), ‘참여하다’(συγκοινωνέω: 엡 5:11); ‘열매를 맺다’(καρποφορέω: 골 1:10), ‘힘쓰다’(προϊστημι: 딤후 3:8, 14), ‘넘치게 하다’(περισσεύω: 고후 9:8), ‘온전히 이루다’(τελειόω; 요 4:34; 5:36; 17:4), ‘이루다’(πληρώω: 행 14:26), 쉬다(καταπαύω: 히 4:4, 10) 등의 동작 동사들과 함께 사용된다. 이 동작 동사들은 주로 긍정적인 형용사와 함께 사용된 ‘에르곤’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기독교자는 ‘칼론 에르곤’, 즉 좋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뻐하고(εὐφραίνω: 행 7:41),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한다(μισέω: 계 2:6).

‘에르곤’은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전치사 어구 κατὰ τὰ ἔργα(롬 2:6; 고후 11:15; 뵈전 1:17; 계 2:23 u ö)가 행위 심판을 지시한다.¹⁸⁾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된다”(고후 11:15: τὸ τέλος ἔσται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ῶν).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거나(κρίνουνω κατα... : 뵈전 1:17; 계 20:12, 13), 갚음을 받게 된다(δίδωμι: 계 2:23; διπλόω: 계 18:6; ποδίδωμι: 롬 2:6; 딤후 4:14; 계 22:12). 그래서 기독교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동작 동사들처럼 선한 일들을 해야 하고, 선한 일을 나타내야 한다(ἐνδείκνυμι: 롬 2:15; 드러내다: ἐλέγχω: 요 3:20; 나타내다: φανερόω: 요 3:21; 9:3; 보이다: δείκνυμι: 요 5:20; 10:32; 본을 보이다: παρέχω: 딤후 2:7). 왜냐하면

17) ἔργον ἐργάζομαι'는 이미 칠십인역에 많이 등장한다(출 31:5; 민 8:15; 합 1:5 등).

18) R. Heiligenthal, 윗글, 12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엡 2:10: κτισθέντε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ἐπὶ ἔργοις ἀγαθοῖς)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에르곤’은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일의 선함과 악함, 그 일들의 적합성과 비적합성, 열심의 정도, 그 결과에 따른 보응과 심판 등이 일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해야 할 선한 내지는 착한 행실이 부각된다.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의어적인 수식어 ‘아가토스’와 ‘칼로스’가 함께 사용되나 전자는 성향을, 후자는 실재를 표현한다. 이 착한 행실은 자신을 주신 예수 사역의 목적으로까지 언급된다. 그것은 좋은 행실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참조. 딤후 2:14).¹⁹⁾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남에게 본(딤후 2:7)이 될 정도로 좋은 행실을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에르곤’의 신약에서의 용법은 그리스어의 용법과 성서와 유대교적인 용법²⁰⁾을 다 함께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3) 실용론 분석

산상설교는 다양한 언어적 수단을 통한 독자 유도의 아주 좋은 실용론적인 예를 제공한다.²¹⁾ 그 중에서도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여러 가지 언어적인 수단들이 밀집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19) 바울도 로마서 2장 6-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20)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하라. 그리스어 용법: G. Bertram, ἔργον, κτλ., ThWNT II, Stuttgart, 1935, 632; 히브리어 성경: H. Ringgren, עָבַד, TWAT VI, hg. von H.-J. Fabry/ H. Ringgren, Stuttgart u.a., 1989, 413-432;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bearb. von F. Buhl, Berlin, Heidelberg, u.a., 1962, 448; 그리스어 성경과 유대교 용법: H. G. Kippenberg/ G.A. Wewers(hg), Textbuch zur neutestamentlichen Zeitgeschichte, Göttingen, 1979, 145; G. Bertram, ἔργον, κτλ., ThWNT II, 642; J. Leipoldt/W. Grundmann, (hg), Umwelt des Urchristentums, Berlin, 1990, 341 이하.

21) 김희성, 「신약주석방법론」(서울: 한들출판사, 2000), 99.

각각의 소문단을 여는 구절은 ‘바로 너희는’이라는 식의 침예화된 화법으로서 산상설교의 청중 내지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다음으로 점증법으로 이루어진 소금의 기능 상실의 결과도 독자를 맞을 내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소금이 그 기능을 잃으면 기능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밟힌다’는 그림언어도 종말적인 심판을 연상시키는 예수의 제자로서 독자들을 향한 위협적인 경고이다.²²⁾ 비유(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한다)는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놀라운 정의 다음에 나온 ‘세상의 빛’에 대한 은유적 설명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기우지 못하듯이 너희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할 빛이다. 속담 내지는 경험에의 지시(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앞에 나온 속담과 함께 빛의 기능을 더욱 강조해서 설명한다. 빛은 널리 비춤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 단 한번 등장하는 “비춰라!”라는 명령법이 독자들에게 행동을 시급하게 하도록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명령법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다른 많은 명령법들²³⁾과 함께 독자를 행동으로 강력하게 유도한다.

이 명령법을 이 단락의 첫 구절을 형성하는 직설법과 연계해서 보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다음처럼 이중적인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²⁴⁾

22) 김희성, *윳글* (2005), 67.

23) 예를 들면, 이 단락의 바로 앞 구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현재 명령법 - 이것은 반복하거나 지속되어야 할 행동을 시사하는데 - 이 두 번 나온다. 여기서는 단순과거 명령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는 ‘더 나은 의’의 문단(마 5:20-48)에는 계명에 사용되는 강력한 명령의 미래시제가 등장한다. 거기서는 계명을 아주 강화하는 예수의 유명한 반명제가 나온다. 이러한 명령법들은 독자들에게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시하는 언어적 수단이다.

24) 김희성, *윳글* (2005), 66.

	소금에 관한 말씀(13절)	빛에 관한 말씀(14-16절)
직설법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명령법	(없음)	너희의 빛을 비취라
수행하지 않은 결과	밖에 버리워 밟힘	(없음)
수행한 결과	(없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 표를 보면, 소금에 관한 말씀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직설법 다음에 “맛을 내라”는 명령법은 생략되어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에 명령법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의, 즉 맛을 잃어버려 맛을 내지 못할 때의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리워 짓밟힌다! 그 반면에 빛에 관한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직설법 다음에 비유와 속담을 통하여 빛을 비취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법 “비취라”가 나온다.²⁵⁾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했을 때의 결과가 뒤따른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이중적인 직설법과 명령법의 작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은혜로 직설법 표현이 된 신앙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도 명령법을 수행해야 직설법 표현이 실재가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마태는 바울과는 달리 직설법과 명령법을 함께 생각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발설된 구원의 상태(“소금”, “빛”)는 동시에 행동에로의 요구이다. 마태는 행위로 자기 의를 의미함이 없이 숨김없이 착한 행실에 관해서 말한다.²⁶⁾

만일 직설법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명령법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직설법이 무효가 되고 종말적인 과멸이 기다리게 된다. 기독교인들도 명령법을 준행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기독교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5) G. Barth, "Bergpredigt", TRE 5 (1980), 606.

26) U. Luz, 율골, 219.

소금과 빛 단락은 독자 유도의 여러 가지 언어적 수단들이 집중된 단락으로서 독자들이 착한 행실을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한다.

4) 편집과 자료들²⁷⁾

우선 산상설교는 Q의 평지설교가 그 뼈대를 이루고, 이 뼈대 위에 Q의 평지설교 외에 있는 다른 말씀들과 마태의 특별자료의 말씀들을 엮어 편집한 가르침이다.²⁸⁾ 산상설교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평지 설교 외에 Q에 있는 다른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들과 속담들을 가지고 편찬된 글이다. 이 단락을 병행 구절들과 공관 대조를 하면 다음과 같다:

13a(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병행 없음

13b(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눅 14:34b(Q); (참조. 막 9:50)

13c(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눅 14:35a(Q)

13d(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병행 없음

14a(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병행 없음

14b(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참조. 도마복음서 32; P. Oxy. 1:7

15(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눅11:33 (Q); (참조. 막 4:21; 눅 8:16; 도마복음서 33b)

16(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27) W. D. Davies and D.C. Allison, *Matthew 1-7,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 Wiltshire, 2004, 470

28) 김희성, *유태* (2005), 42-45; G. Schneider, "Das Bildwort von der Lampe", ZNW 61 (1970) 183-209. 이러한 조망에서 말씀들의 위층은 마태에게로 소급될 수 있다고 한다. J. Schmid, *Das Evangelium nach Matth us, Regensburg*, 31956, 84; W. Grundmann, *Das Evangelium nach Matth us, Berlin*, 1968, 135.

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병행 없음

이러한 대조하에서 13a, 14a, 16절은 편집에 해당한다는 주장²⁹⁾이 일반적이지만, 13d절의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는 말씀도 편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종말적인 심판을 연상시키는 그 말씀은 심판을 마태복음 전체 설교들에서 매우 많이 강조한³⁰⁾ 마태의 편집에 아주 잘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6절이 마태에 의해서 편집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그 구절은 등불-말씀의 마태적인 해석 내지는 적용³¹⁾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의미를 얻는다.³²⁾

병행이 있는 소금에 관한 말씀(13bc)과 등불(15)에 관한 말씀은 표제어(맛을 잃다)나 내용(사람에게 비취다: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한다)을 보면 마가보다는 Q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 이 중에서 15절의 등불에 관한 말씀은 예수에게로 소급된다³³⁾거나, 도마복음서가 더 오래된 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³⁴⁾ 14절의 산 위에 세운 도시에 관한 말씀은 마태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도 하나,³⁵⁾ 그 말씀은 아마도 마태 이전에 Q에서 이미 보충된 것 같다(QMt?).³⁶⁾

이상에서 인상적인 것은 위의 표에서 병행이 없는 구절들은 모두 마태의 편집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마태의 편집적인 손길은 소금에 관한 말씀과 빛에 관한 말씀 각각의 처음과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편집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기독교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종말적인 파국을 맞게 되고, 사명을 잘 감당 할 때에야 하

29) R. Bultmann,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Göttingen, 1919, 100; U. Luz, *룻골*, 220; W. D. Davies and D. C. Allison, *룻골*, 471.

30) 김희성, 「하나님의 나라」(부천: 하나님의 나라&성서연구소, 2010), 194-234.

31) R. Bultmann, *룻골*, 100.

32) G. Schneider, *룻골*, 200.

33) J.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Göttingen, 1917, 103 이하.

34) R. Bultmann,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Ergänzungsheft), Bearbeitet von G. Theissen und P. Vielhauer, Göttingen, 1919, 37.

35) *룻골*, 77.

36) U. Luz, *룻골*, 220; 비교, E. Schweizer, *룻골*, 58 이하.

나눔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편집적인 강조는 분명히 뒤에, 즉 기독교는 착한 행실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데에 놓여 있다.

3. 소금과 빛(마 5:13-16)의 마태복음 관련성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 속해 있는 소금과 빛의 언어와 문학적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은 산상설교 안만이 아니라 산상설교 밖과도 여러 부분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산상설교 안과 산상설교 밖과의 관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상설교 안과의 관련성

(1) 협의의 문맥

① 행복선언(마 5:3-12)과의 관계

본 단락은 산상설교의 서론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 서론인 행복선언(마 5:3-10)은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그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의 특성과 그들이 그 나라에서 받을 땅(마 5:5)과 하늘에서 받을 보상(마 5:12)을 강조한다.³⁷⁾ 이렇게 행복선언은 청중 내지는 독자의 시선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한다.³⁸⁾ 곧장 뒤따라 나오는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 단락(마 5:13-16)은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시선이 종말론적인 하늘나라와 하늘에서부터 즉각 땅과 세상으로

37) 김희성, *윳골* (1994), 98.

38) 윳골, 98.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3, 10)라는 병행구절로 에워 쌓여 있다.

내려오게 하면서³⁹⁾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의 이 세상에서의 정체와 사명과 목적을 다루고 있다.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에서 바로 이 “너희”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천명이 된다(마 5:13, 14). 이 “너희”가 9번째 행복선언(마 5:11-12)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너희”를 받는다.⁴⁰⁾ 이 “너희”는 8가지 행복선언에서 언급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시사한다. 행복 선언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아들 됨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라는 표현 속에 전제 되고 있다. 세상의 빛인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②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마 5:17-19)와의 관계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 이어진다. 이 소단락에서 메시아 예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밝힌다. ‘율법을 온전케 하다’는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다’를 뜻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거나 실현하신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구약의 의도된 의미를 계시하시고 그것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약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주이시다. 하지만 그는 순종을 통하여 율법(토라)이 무제한 적으로 유효하게 되도록 하셨다.”⁴¹⁾

39) A. Kretzer, γῆ, EWNT I, 593.

40) 김희성, *룻* (2005), 66.

41) *룻*, 73.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친 예수는 제자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다. 마태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고 더 탁월한 것이다(마 5:20; 7:21).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준행함으로 산다(마 4:4).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가장 큰 두 계명(마 22:34-40)뿐만 아니라 율법의 중요한 것들과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수행해야 한다(참조. 마 23:23). 사람은 과연 산상설교의 요구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수행 불가능하다는 견해들도 있으나⁴²⁾, 마태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수행 가능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요구들을 수행할 수 없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참조. 마 28:20)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는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수행하는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다가가고, 사람들은 그러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③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산상설교에서 가장 많이 17번이나 등장하는 ‘아버지’⁴³⁾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처음 등장한다. 이 어구는 이미 행복선언(마 5:3-12; 특히 11-12)에서 “너희”라는 칭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팔복의 7번째 복으로 언급되었다: ‘평화를 창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마 5:9).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미래 시제로 표시되고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종말론적인 보상으

42) 산상설교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바울-루터적 해석, 결단의 호소리는 볼트만의 해석, 마음가짐의 윤리라는 헤르만의 해석 등은 산상설교의 요구들을 서취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참고. 김희성, *윳글* (2005), 32-34.

43) 산상설교의 ‘아버지’ 용법에 관하여, 김희성, *윳글* (1994), 90-100.

로 약속되었다.⁴⁴⁾ 그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게 된다. 이 7번째 행복선언은 상호 문장론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원수 사랑의 명령(마 5:43-48)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⁴⁵⁾ 여기서 원수 사랑이 저기의 평화창출과 병행하고, 여기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저기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병행한다.⁴⁶⁾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저기서는 평화를 창출하는 자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원수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평화를 창출하는 자들’(εἰρηνοποιοὶ)이고, 평화를 창출하는 자들은 원수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상호 의미적 관련이 형성된다. 이러한 관련성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를 창출해야 한다”⁴⁷⁾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원수사랑은 이웃사랑의 철저한 경우이고⁴⁸⁾,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뜻에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준행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마 7:21).

이러한 관련성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을 통하여 미래에 아들 됨의 상을 받아야만 하고, 원수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야만 한다. 바로 이들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고,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다.⁴⁹⁾

44) 윗글, 105.

45) R. A. Guelich, “The Antithesis of Matthew V. 21-48: Traditional and/or Redactional?”, NTS 22 (1975/76), 449; D. L. hrmann, “Liebet eure Feinde”, ZThK 69 (1972), 415; 김희성, 윗글 (1994), 110.

46) 김희성, 윗글 (1994), 110.

47) 윗글.

48) D. L. hrmann, “Liebet eure Feinde”, ZThK 69 (1972), 426.

49) 김희성, 윗글 (1994), 105.

2) 산상설교 밖과의 관련성

(1) 빛

“빛”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시 18:29; 미 7:8; 사 60:1-3),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율법 혹은 성전, 혹은 위대한 학자⁵⁰⁾, 또는 메시아⁵¹⁾에 대한 은유로 사용된다.⁵²⁾ 그러나 마태에게서 빛은 우선은 예수 자신이다(마 4:16)⁵³⁾. 칠십인역 이사야 28장 23절 이하와는 달리 이 인용구에서는 빛(φῶς)이 구절의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된다. 바로 예수의 인격, 말씀, 행동이 빛이고⁵⁴⁾, 이 빛이 먼저다. 그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고, 그의 치유와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게 된다. 그런데 산상보훈의 서론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선지자들이고(마 5:11-12) 세상의 빛이다(마 5:14). 여기에는 제자 공동체의 선지자적인 자기 이해가 반영된다.⁵⁵⁾ 빛인 그들의 한 분 스승인(마 23:8-10) 예수로부터 비취임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새롭게 된 세상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마 13:37이하, 49이하).⁵⁶⁾ 빛은 존재론적으로 비취게끔 되어 있다. 비취이지 않으면 빛이 아니다. 어둠이다.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빛인 예수의 제자들은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것이 듣는 즉시 시행해야 할 단순과거 명령법으로 떨어졌다. 이제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자기의

50) E. Schweizer, *윗글*, 60.

51) 랍비들도 메시아의 빛을 안다. O. Michel, “Das Licht des Messias”, in *Donum Gentilicium*, ed. E. Bammel, C. K. Barrett, and W. D. Davies, Oxford, 1978. 140-150.

52) 비교. U. Luz, *윗글*, 223 이하.

53) E. Schweizer, *윗글*, 60.

54) W. D. Davies and D.C. Allison, *윗글*, 385; 참조. H. Ritt, φῶς, EWNT III, 1072.

55) H. Ritt, *윗글*, 1072.

56) 김희성, *윗글* (1994), 93.

신앙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⁵⁷⁾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자기가 빛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를(마 6:23)⁵⁸⁾, 자기의 마음과 섬김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지⁵⁹⁾ 아니면 세상을 지향하는지를.⁶⁰⁾ 사람을 빛으로 환하게 하거나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다.⁶¹⁾ 기독교는 빛으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 좋은 행동으로 가득해야 한다.

(2) “가르쳐”(마 5:2)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포함하여 전체 산상설교는 예수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마태복음 5장 2절의 가르쳐(ἐδίδασκεν)는 미완료 시제로 되풀이 되는 행동을 시사한다. 왜 미완료 시제로 예수의 가르침을 묘사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명령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의 예수로부터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 삼아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28:18-20). 이 지상명령에서 “분부한 모든 것”은 다섯 개의 설교들을 포함하여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다. 이것들을 제자 자신도 지키고 가르쳐야 하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지키며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모든 가르침이 반복되어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도입부분에서 가르치다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해명해 준다.

우선 협의의 문맥에서 산상설교의 청중은 제자들과 무리들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5절-5장 2절과 마태복음 7장 28-29절을 통해서 파

57) H. Ritt, 윗글, 1072.

58) W. D. Davies and D.C. Allison, 윗글, 640.

59) H. Ritt, 윗글, 1072.

60) E. Schweizer, 윗글, 103.

61) U. Luz, 윗글, 361.

악될 수 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예수께서 입을 열어 산상설교를 가르쳤다. 그런데 산상설교를 끝마치고 나니까 놀라는 것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나아간 무리들과 제자들이 산상설교의 청중이다. 그러나 마지막 지상명령에 의하면, 그들만 산상설교의 청중이라고 제한할 수 없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도 청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의 그들의 제자들도 청중이 될 수 있다. 즉 마태복음을 듣고 읽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산상설교의 청중이 될 수 있다.⁶²⁾

(3) “이 말씀을 마치시매”(마 7:28)

산상설교가 끝난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다섯 개의 설교⁶³⁾가 끝난 후에 후렴처럼 등장하는 문구이다. 다섯 개의 설교들은 모세 오경과 유비되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매”로 끝맺었듯이 예수도 다섯 개의 설교들을 마칠 때 그러한 후렴구절로 끝맺는다. 이 이외에도 마태복음의 예수와 모세 오경의 모세와 비교하면, 서로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다.⁶⁴⁾ 이러한 유사점들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가 모세를 능가하는 “제2의 모세” 혹은 “제2 모세 메시아”이고⁶⁵⁾,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새로운 다섯 개의 설교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시사한다.⁶⁶⁾ 산상설교는 메시아의 첫 번째 설교로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의 집합체이다.

62) 김희성, *룻글* (2005), 23.

63) 1. 산상설교(5-7장: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2. 파송설교(10장: 천국복음의 전파명령); 3. 비유설교(13장: 천국에 대한 비유); 4. 교회설교(18장: 천국에서 가장 큰 자); 5. 종말설교(23-25장: 천국의 도래와 심판). 참조, 김희성, *룻글* (2005), 19.

64) 김희성, *룻글* (2000), 187-193.

65) *룻글*, 188.

66) *룻글*, 191.

4.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τὰ καλὰ ἔργα)

착한 행실을 언급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은 부사 οὕτως로 도입되는 주절(16a)과 접속사 ὅπως로 도입되는 종속절(16b)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서 수행한 분석들과 관련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 두 구절을 차례로 살펴보면 착한 행실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주절(마 5:16a)의 주해: 빛을 비춰라

“앞선 것을 다시 지시하는” οὕτως(그와 같이, 이와 같이)는 이제 나오는 16의 적용을 14-15와 연결시킨다.⁶⁷⁾ 그래서 16은 소금과 빛에 관한 단락, 특히 빛에 관한 말씀의 “해석과 적용”⁶⁸⁾으로서 “이 단락을 요약하는 열쇠”⁶⁹⁾가 된다. 그 구절은 13-15절만 아니라 앞에 있는 행복선언(3-12)을 절정으로 인도하고, 산상설교의 전체 서막이 교훈적인 절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⁷⁰⁾ 내용적으로 16은 협의의 문맥에서는 뒤 따르는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와 반명제들과 관련을 맺고⁷¹⁾, 광의의 문맥에서는 산상설교의 후반부의 말씀들⁷²⁾과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16절은 산상설교의 주제⁷³⁾가 될 정도로 특별한 무게를 갖고 있다.

67) W. D. Davies and D.C. Allison, *룻글*, 478. 앞 문장론 분석의 구조를 참조하라. 그 반면에 G. Strecker, *Die Bergpredigt*, Göttingen, ²1985, 54에서는 16절의 적용을 13-15절에 연결시킨다.

68) G. Strecker, *룻글*, 54.

69) U. Luz, *룻글*, 224.

70) G. Strecker, *룻글*, 55.

71) U. Luz, *룻글*, 219.

72) Ch. Quarles, *Sermon on the Mount*, Nashville, 2011, 87; 참조, W. D. Davies and D. C. Allison, *룻글*, 479.

73) Th. Zahn, *룻글*, 206; C. Burchard, “Versuch, das Thema der Bergpredigt zu finden”, in: *Jesus Christus in Historie und Theologie*, FS H. Conzelmann, hg v. G. Strecker, 1975, 420, 432; U. Luz, *룻글*, 219; 김희성, *룻글* (2005), 그 반면에 G. Strecker, *룻글*, 55는 20절에 주제가 있다고 보나, 16절에 20절이 선취되고 있기 때문에 산상설교의 주제가 16절이든지 혹은 20절이든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16a의 주동사는 λάμπω의 단순과거 명령법 능동태 2인칭 복수로 사용되어서 ‘너희’를 향한 명령이 된다. ‘너희’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들, 행복선언의 대상들인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빛인 자들을 말한다. 대단한 존재들이다. 빛은 떴다 하면 비춘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세상의 빛으로서 곧장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것이 곧장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단순과거 명령법으로 떨어진 것이다. 개역개정版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λαμψάτω τὸ φῶς ὑμῶν ἔμπροσθεν τῶν ἀνθρώπων)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취라’이다. 이 명령법은 앞에서 적시한 소금과 빛 단락에서 사용된 이중적인 직설법과 명령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빛을 비추라는 이 명령을 준행하면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아닌, 그렇다면 세상의 어둠이 되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빛을 비취야 할 대상인 “사람들”은 밖의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⁷⁴⁾

2) 종속절(마 5:16b)의 주해: 착한 행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어서 목적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ὅπως가 두 개의 가정법 동사 (ἵδωσιν과 δοξάσωσιν)와 함께 사용되어 주절에서 언급한 것의 목적을 표시한다.⁷⁵⁾ 첫 번째 동사 구절(마 5:16bα)을 통해서 앞 구절에서 이야기 한 “너희의 빛”이 설명된다. “너희의 빛”은 다름이 아닌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여기서 빛과 착한 행실이 동일시되었다.⁷⁶⁾ 그럼언어 빛이 보이는 것처럼 착한 행실도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러므로 목적절에 맞게끔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비취야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74) H. D. Betz, *윌클*, 163.

75) A. Kretzer, *윌클*, 1284.

76) H. D. Betz, *윌클*, 163.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⁷⁾ (짜게 하는 것이 소금의 존재 이유에 속하고,) 산 위에 세운 도시가 감춰질 수 없는 것이 그 도시의 존재 이유에 속하고, 등불이 비취는 것이 등불의 존재 이유에 속하는 것과 같이, καλὰ ἔργα(‘착한 행실’)가 예수의 제자들의 존재 이유에 속한다.⁷⁸⁾

빛으로 은유되는 이 “착한 행실”은 일반적인 착한 행실과는 약간 다르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일, 행실을 뜻하는 ‘에르곤’이 ‘칼로스’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서 기독교자들이 행해야 할 ‘좋은 일’, ‘좋은 행실’ 내지는 “착한 행실”을 표시한다. 예수의 장애인 치유가 좋은 행실, 혹은 착한 행실의 모범이 되고, 예수께 향유부은 여인의 행위가 좋은 일의 예도 된다. 여기서 사용된 “착한 행실”이 문맥을 통하여 더 많고 더 깊은 의미가 충전된다.

이 착한 행실이 협의의 문맥인 산상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인 ‘더 나은 의’(마 5:20)를 얻는 행위가 된다. 물론 마태복음에서의 의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얻는 의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함으로써 얻는다.⁷⁹⁾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계명, 그의 뜻을 실행하는 행위이며, 예수님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행위이다.”⁸⁰⁾ 뿐만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의 구절은 광의의 문맥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친 것들의 수행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가장 큰 계명들의 수행이며, 전 세계에 중재할 그분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77) G. Schneider, 원글, 201 이하는 여기서 존재 이유를 본질로 표현한다.

78) G. Strecker, 원글, 54.

79) 의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마태는 구약의 신명기학파의 사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참조. 신 6:25; 비교. 사 61:1-3; 특히 3).

80) 김희성, 원글 (2005), 69.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의 실현을 통하여 전 세계가 빛으로 만나는 바로 그것이다.⁸¹⁾

이어서 목적절의 두 번째 가정법 동사 *δοξάσωσιν*(5:16bβ)을 통해서 착한 행실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그 목적은 제자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기독교인의 삶의 최상의 목적⁸²⁾이다. 그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달성된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의와 평화와 사랑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이미 그들의 회심을 내포한다.⁸³⁾ 기독교인의 삶과 행실은 이와 같이 선교적 기능을 갖는다. 선포하는 말씀 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행위가, 삶을 통한 증거가 선교의 기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전체 선교공동체의 중요 과제가 된다.⁸⁴⁾ 이러한 관계성에서 마태는 바울과는 달리 직설법과 명령법을 함께 생각한다. 주님에 의해서 발설된 구원의 상태(“소금”, “빛”)는 동시에 맛을 내고 빛을 발하라는 행동의 요구이다.⁸⁵⁾ 마태는 이렇게 선교적인 기능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수행을 통해 얻는 의로서의 구원론적인 기능을 갖는 착한 행실에 관해서 말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것이다.”⁸⁶⁾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분명하게 전체 기독교적인 행위의

81) 참고, 윌글: U. Luz, 윌글, 226.

82) Ch. Quarles, Sermon on the Mount, 88.

83) 김희성, 윌글 (2005), 70.

84) 윌글.

85) U. Luz, 윌글, 219.

86) Ch. Quarles, 윌글, 88.

목적⁸⁷⁾으로 천명하는 신약에서 몇 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 중의 하나이다.⁸⁸⁾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착한 행실의 실행 가능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착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실천 불가능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는 가능하다.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을 요약하자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계명, 그의 뜻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행위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것들을 수행하는 행위이고, 전 세계에 중재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전 세계가 빛으로 만나는 바로 그것이다.

이 착한 행실이 기독교인의 삶의 최상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더 나은 의’와 결합된 구원의 길이고⁸⁹⁾, 사람들을

87) U. Luz, 윗글, 219.

88) 윗글.

89) 사실은 바울도 행함을 믿음과 대조시켰지만, 착한 행실을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을 행함에 대한 요약적인 요구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구원의 길에 속할 정도이다(살전 5:15; 갈 6:6, 10; 롬 12:21)(J. Baumgarten, 윗글, 14). 그가 율법의 일과 믿음의 일을 대조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구원의 길을 통한 율법의 옛 구원의 길의 해체 논쟁을 위해서였지, 선함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바울도 놀랍게도 종말적인 회개 설교의 범주에서 행위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 한다(참조. 롬 2:6-11; 고전 3:13; 갈 6:4)(참조. R. Heiligenthal, 윗글, 124.). 그에게 있어서 칭의 교리와 심판 사상은 밀접하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후 5:10; 갈 6:7 이하; 비교. 엡 6:8).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항상 책임 하에 서있다. “순종과 불순종은 태일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게 하거나 못하게 한다. 순종은 그러므로 오로지 롬 2:10의 좋은 것, 좋은 일, 세상 심판 때에 탈리오의 판단범주이고 종말론적으로 선취된 축복 안에 있는 상태이다. 불순종은 그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된 위치에서 나오고 무제한적인 나쁨을 표시한다.”(J. Baumgarten, 윗글, 13). 제2바울 서신에서는 윤리적인 선을 행함(엡 4:28; 6:8)과 “착한 행실”(엡 2:10; 골 1:10)은 더 공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속의 조건도 아니고, 창조주에 의해서 해체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해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엡 2:8-10) 창조주와 피조물, 신인과 행위의

실족케 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다. 착한 행실만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 회심케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것이 교회 내부 사람들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고, 비기독교 세계와 소통 가능한 가장 중요한 성서적 가치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개신교가 착한 행실에 관한 마태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것이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선포한 가장 위대한 모토인 soli Deo Gloria “하나님에게만 영광을”⁹⁰⁾ 삶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메시아가 온지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사야 11장 6-9절의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점점 더 충만하게 될 것이며,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해처럼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로 메시아 예수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착한 행실들(καλῶν ἔργων: 필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참조. 딤후 2:14).

5. 참고 문헌

- 김희성, 「신약주석방법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0).
 _____, 「입체적으로 본 산상보훈」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05).
 _____, 「하나님의 나라」 (부천: 하나님의 나라&성서연구소, 2010).

상응에 대한 꼭 필요한 표현이다 (J. Baumgarten, 윗글, 14.). 착한 행실이 묵회서신에서는 “하나님 경외의 고백행위(딤후 2:10)”(J. Baumgarten, 윗글, 15.)와 “공동체 윤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R. Heiligenthal, 윗글, 126.)로서 좋은 기독교 내지는 기독교 지도자의 표시가 된다.

90) Ch. Quarles, 윗글, 87.

_____, “산상보훈의 Imitatio Dei”,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 (1994), 83-115.

Barth, G., Bergpredigt, TRE 5 (1980), 603-618.

Baumgarten, J., ἀγαθός, EWNT I, 10-17.

Bertram, G., ἔργον κτλ., ThWNT II, Stuttgart, 1935, 631-653.

Betz, H. D., The Sermon on the Mount, Minneapolis, 2013.

Buhl, F., Gesenius' hebr. isches und aram. isches Handw. rterbuch
ber das Alte Testament, Berlin, Heidelberg, u.a., 1962.

Bultmann, R.,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Erg.
nzungsheft, Bearbeitet von G. Thei. en und P. Vielhauer, G.
ttingen, 51979.

_____,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G. ttingen, 91979.

Burchard, C., Versuch, “das Thema der Bergpredigt zu finden”, in:
Jesus Christus in Historie und Theologie, FS H. Conzelmann,
hg v. G. Strecker, 1975, 409-432.

Davies, W.D. and Allison, D.C., Matthew 1-7,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 Wiltshire, 2004.

Grundmann, W., Das Evangelium nach Matth. us, Berlin, 1968.

Guelich, R.A., “The Antithese of Matthew V.21-48: Traditional and/
or Redactional?”, NTS 22(1975/76). 444-457.

Heiligenthal, R., ἐργάζομαι, κτλ., EWNT II, 21992, 120-123.

_____, ἔργον, EWNT II, Stuttgart, 21992, 123-127.

Jeremias, J., Die Gleichnisse Jesu, G. ttingen, 91977.

Kippenberg H.G./Wewers, G.A. (hg), Textbuch zur neutestamentlichen
Zeitgeschichte, Göttingen, 1979.

Kretzer, A., γῆ, EWNT I, 592-593.

Leipoldt, J./Grundmann, W. (hg), Umwelt des Urchristentums,

- Berlin, 81990.
- L hrmann, D., Liebet eure Feinde, ZThK 69 (1972), 412-438.
- Luz, U.,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I, Zürich, 31992.
- P hlmann, H.G., Abri der Dogmatik, G tersloh, 31980.
- Quarles, Ch., Sermon on the Mount, Nashville, 2011.
- Ringgren, H., $\eta\psi$, TWAT VI, hg. von H.-J. Fabry/ H. Ringgren, Stuttgart, 1989, 413-432.
- Ritt, H., $\phi\omega\varsigma$, EWNT III, 1071-1075.
- Schenke, L., Das Markusevangelium, Stuttgart, 1988.
- Schmid, J.,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Regensburg, 31956.
- Schneider, G., “Das Bildwort von der Lampe”, ZNW 61 (1970), 183-209.
- Schweizer, E.,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Göttingen, 41986.
- Strecker, G., Die Bergpredigt, Göttingen, 21985.
- Wanke, J., $\kappa\alpha\lambda\acute{o}\varsigma$, EWNT II, 21992, 602-605.
- Zahn, Th., Das Evangelium des Matthäus, Wuppertal, 1984.

검색어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예수 사역의 목적

구원의 길

비기독교 세계와의 소통

“Good Deeds” in Matthew 5:16

Kim, Hee Seong Dr. theol.

emeritus professor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is a study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to offer a point of communication with the non-Christian world: Good Deeds. The focus of this paper is restricted to Matthew 5:13-16, and a synchronic assessment based on linguistic analyses and a diachronic assessment based on historical-critical analyses are employed. The syntactic structure of Matthew 5:13-16 reveals that Good Deeds are a Christian's obligation that he has to reveal onto others as light with the goal of glorifying God. In the semantic analysis, the keyword “ergon” becomes a semantic field in which “Good Deeds” are emphasized to such a degree that they appear as major objective of Christ's mission in appointing his people. Examined from a pragmatic standpoint, the dual combination of the indicative mood and the imperative mood in this passage constitutes a strong inducement of the reader to conduct Good Deeds. An editorial analysis reveals that the editing is focused on the beginning and end part of the passage on salt and light, and the emphasis is on the Christian's obligation to conduct Good Deeds in order to glorify Go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verall context of the sermon on the mount in which it is embedded, the passage reveals that those who will appear as sons of God at the end of days have to receive this title as reward through a life that resembles God, and prove themselves to be sons of God through love of their enemies. Within the context of the entire book of Matthew, Jesus' personality, words and actions become

www.kci.go.kr

the light, and his followers that receive this light are the light of the world. In a renewed world, they will operate as sources of light.

All in all, Good Deeds are God's commandments to realize his will and follow his words as passed on through the law as well as prophets. Good Deeds further actualize Jesus' new commandment which he based on a reinterpretation of God's law and the words of the prophets and can be summarized as love of God and love of your neighbors. Ultimately, Good Deeds are the means by which the world encounters the light of God.

Good Deeds, thus, combine with "a better righteousness" which is a conditio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become a path to salvation and also a way to lead people to God. Good Deeds alone appear as light to them and in turn, give glory to God. Hence, this is the only way for Christians to give glory to God and the most important biblical value to communicate with the non-Christian world.

Keywords

Good Deeds

glorifying God

major objective of Christ's mission

a path to salvation

communication with the non-Christian world

■ 투고일: 2014년 7월 01일

■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06일